

정보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심성교육

- 유교의 입장을 중심으로 -

이 문 주

(성균관 유교교육원)

I. 문제의 제기

20세기는 교육의 세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된 시기이다. 현대 세계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교육의 뒷받침으로 이룩된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학과 경제 발전이 많은 나라의 정책적 목표가 되면서 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수와 훈련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요컨대 현대교육은 智育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의 정서적 능력을 배양하고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지식의 전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요즈음 세계에서는 체육과 지육을 함양하는 교육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정서적 능력과 도덕적 인격을 기르는 교육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 중심의 교육은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성수, 1996: 37).

즉 갈등과 좌절에 대처하는 정서적 능력이 제대로 함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에 쉽게 빠지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결국 노이로제, 정신병, 성격장애 같은 것이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과 아울러 나쁜 교육환경 및 잘못된 청소년교육 정책이 청소년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

육인구의 포화상태와 이에 따른 치열한 직업 진로의 경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 사회를 의심하게 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절망적인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방황하게 하여 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권이중, 199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것이 인성교육 또는 심성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경쟁적이고 편협한 인간이 아니라 덕성을 바탕으로 교양과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부각되어야 할 인간상은 인간의 생명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본고는 유교의 입장에서 청소년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간 과거의 생활양식, 규범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가치체계, 역할구조 등을 받아들여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여 가는 가운데 옛 것과 새로운 생활방식, 규범 등을 조화롭게 통합시켜 바람직하게 변화되어 가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즉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 서로 섬기고 공경하며 타인과의 조화를 위하여 극기하는 슬기 등이 약화되어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 사고, 어른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는 우리들 속에 내재하여 있는 윤리의식을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지배했던 이념과 규범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저변에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심성에 대한 유교의 이해

일체의 사물은 각각 고유한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孟子. 告子上).¹⁾ 인간도 인간만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 이러한 인간에게 고유한 본

1)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夷 好是懿德”

질적 속성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공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 바르게 태어났으니 바르지 않게 행동하고도 사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다”(論語, 雍也).²⁾ 라고 하였다. 또 “인간의 본성은 서로 가까운데(性相近) 습관에 의하여 멀어진다.(習相遠)”(論語, 陽貨)³⁾고 하였다. 공자는 성상근(性相近)이라고 하였지만 맹자는 성선이라고 하였다(孟子, 滕文公上).⁴⁾ 맹자에 있어서 성선이라 함은 인간 고유의 본질로서 인성이 선하다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좌우되는 바 성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선은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심리적인 작용에 있어서 선이라기 보다는 도덕의 가능근거로서의 성이며 선인 것이다(柳承國, 1983: 125). 이때의 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선악의 선보다도 타고난 바 인간의 천연한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으로서 이것을 진(眞)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은 성이요, 그 성 자체는 불변적이며 만선(萬善)이 갖추어진 것으로 내재한 것이다.

유교에 있어서 사람의 성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이며 이것이 외물에 접하여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사단(四端)의 정(情)을 낳는다. 사단은 인의예지의 사덕(四德)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경험세계에서 인성의 선악을 판단하는 요체이며 수양의 골자가 되는 것이다. 인의예지의 사덕은 실행에 옮겨진 구체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단은 현실에 사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순수한 감정이다. 인간에게 사덕이 있음을 아는 것은 이 사단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의 인식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지만(孟子, 盡心上),⁵⁾ 인식을 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경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 사덕을 자각하고,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 주체적 선택과 판단을 하도록 하여 주며,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현실에서 선을 실천하는 이정표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2)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3) “性相近 習相遠”

4)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5) “人之不學而能者 良知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사단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 외물에 감응하여 표현된 감정으로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다. 하나는 성선의 논증 근거로서 이고, 다른 하나는 수덕(修德)의 측면으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 근거로서이다. 먼저 성선의 논증 근거로서 본다면 인간의 정신 구조를 분석하면 심과 심의 본질로서 성과 이것이 심의 통제를 받아 밖으로 표출되는 정이 있다. 즉 사단은 정의 하나로 순수한 감정이다. 이러한 사단은 인간에게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미루어서 인간의 고유성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개념화하여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본성을 인식하는데 그 단서가 되기 때문에 단(端)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단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 근거로서 볼 수 있다. 사단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이것은 지적 탐구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 그러한 행동을 당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요청은 외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내적인 요청이고 이것에 따를 때 내외가 합일하여 주체적 삶이 가능한 것이다. 당위적 요청으로 사단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확충하고 길러서 물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욕에 이끌려 본성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본성의 선함을 자각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유교에서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을 제시하고 있다. 존심은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사단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며, 양성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지켜 해치지 않는 것이다. 사단은 인의예지의 단서이니 존심은 양성의 방법이 된다. 맹자는 구방심(求放心)을 학문의 방법으로 생각하였으며, 사람들이 방심을 구할 줄을 모른다고 개탄하고 있다. 맹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때가 없어서 그 돌아올 바를 모르는 것이 마음이다”(孟子·告子上),⁶⁾라고 하였다.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꼭잡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일단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는

6)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자성 내구(內求)할 것을 말한다.

인간의 몸에는 귀천과 대소가 있는데 그 귀하고 큰 것을 기르면 대인이 되고, 천하고 작은 것을 기르면 소인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귀하고 큰 것은 도덕이고, 천하고 작은 것은 육체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니 결국 마음을 잘 단속하여 기르면 대인이 되고, 방심을 하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도덕을 해치는 물욕을 막기 위하여는 과욕을 하여야 한다. 본심을 잘 지키려면 욕심을 적게 하여 자제 하여야 하며,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본다(孟子. 盡心上).⁷⁾ 그러나 과욕은 멸욕(滅慾)이나 무욕(無慾)과는 다르다. 유교에서 멸욕이나 무욕을 말하지 않고 과욕을 말하여 욕망의 절제를 말한 것은 중용에서 말하는 ‘발이개중절 위지화(發而皆中節 謂之和)’의 중절지욕의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柳承國, 1983: 128).

유교에서 선의 실천은 인간의 본성을 자각하고 이 본성을 지켜 이것에 따라 행동을 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 밝혀지고 또 그것을 자각하였다면 그것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맹자는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자식을 사랑하듯 남의 아이를 사랑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孟子. 梁惠王上),⁸⁾고 하였다. 즉 나의 호오(好惡)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의(義)이고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리(私利)와 구별되는 것으로 사리는 다른 사람과의 이해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노오노 이급인지노(老吾老 以及人之老)’하는 마음은 모두가 본래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사단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아 그것을 확충하면 불이 처음 불는 것 같고, 물이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그것을 확충하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孟子. 公孫丑上).⁹⁾ 유교에서 선의 실천은 인간의 내적 도덕성

7) “良心莫善於寡慾 其爲人也寡慾 雖有不存焉者寡矣 其爲人也 多慾 雖有存焉者寡矣”

8)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9)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의 확충과 발현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선한 본성의 자연적인 표현으로서 사단은 윤리 실천의 내적 근원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차마 지나칠 수 없는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이 생기고 이 마음이 절실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본성의 표현으로서 사단은 정적인 심의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인간 상호간에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고 윤리적 사회 도덕적 사회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Ⅲ. 심성교육과 유교

칸트는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다워질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즉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에서 인간다운 존재로 바꾸어 나가는 활동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을 사회화라고도 하며 어떤 가치나 진리여로의 접근이라고도 하며 혹은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내지는 변화과정이라고도 정의한다. 그러나 어떤 쪽에서 접근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는 교육은 변화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또 교육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의 추구에 있으며 그 중심사상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중심 교육이 전적으로 인간성 존중의 입장을 중시한 나머지 사회적 도덕적으로 사람좋은 인간형성에만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류의 문화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식 기능 가치들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힘들여 학문을 하고 예리한 지성과 분석적 종합적 사고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의 발달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는 항상 변하고 문제는 언제나 새롭다. 계속되는 문제상황에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학문을 하고 지성을 닦으며 기능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인간성 교육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고 목표이다.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서는 인지적 교육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것의 지나친 강조와 기대가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왔다. 스웨덴의 엘렌 케이(Ellen Key: 1849-1916)는 주지주의적 교육은 정신적 살인이며 교육의 비결은 교육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동원, 1995). 교육의 영역은 크게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심성교육은 정의적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정의적 교육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왔고 그 이유는 정의적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못하고 그 개념조차도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의적 교육이 인격도야, 애국심의 함양, 정신적 자세의 확립 등 모호한 용어로 표현되어왔기 때문이다. 정의적 교육은 한마디로 전인적인 인간교육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간 원만한 인성의 소유자로서 성숙을 기하는 교육이다.

유교에서의 교육은 소학 교육과 대학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소학 교육은 물뽀려 청소하고 어른에게 웅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갈 때의 행동거지 등과 같은 예절덕목을 행동으로 배우며, 예, 악, 사, 어, 서, 수 등과 같은 육예(六藝)를 통하여 정서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대학 교육은 소학에서 배운 예절덕목들에 대하여 그 이치를 밝히는 도덕적 사고 교육이 그 주된 교육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소학 교육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하는 태교로부터 시작을 한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잠자리에서 옆으로 눕지 않으며 앉거나 설 때 바르게 앉고 서며, 바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으며, 나쁜 것은 보거나 듣지 말라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좋은 시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 이것은 유교에서의 교육이 심성교육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태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관대하고 자애로우며 온화하고 공손하며 신중한 사람을 택하여 아이를 가리키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아이가 말하고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람과 같이 지냄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바르게 밥을 먹는 것을 가리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르게 웅대하는 것을 가리키라고 한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유아교육

의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6살이 되면 숫자와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고 8살이 되면 집밖을 출입하거나 자리에 앉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양하는 것을 가리켜 남을 배려하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세상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며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9살까지는 초보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밥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답하는 법, 사양하는 법, 어른 대하는 법, 언어교육, 행동거지, 의복입는 법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을 익히는 교육이다.

울곡은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 “자식을 낳으면 조금씩 알기 시작할 때부터 마땅히 선으로 인도할 것이다. 만일 어리다고 가르치지 않다가 이미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비리에 물들고 방심이 되어 가르치기가 어렵다.”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특정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에 경험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어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울곡은 유년기에 그 기틀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며 이때 삼가야 할 17조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쓰는 일
- 2) 부모가 명한 것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 일
- 3) 형이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말을 포악하게 하는 일
- 4)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고 다투는 일
- 5) 음식을 서로 다투고 사양하지 않는 일
- 6) 다른 아이들을 침해하고 업신여겨 서로 다투는 일
- 7) 서로 경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내는 일
- 8) 단정하지 못하고 옷소매를 풀어 헤치고 한 다리에 의지해 기대는 일
- 9) 걸음걸이를 경솔히 하여 뛰어다니고 넘어 다니는 일
- 10) 실없는 농담을 좋아하고 말소리나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일
- 11) 이익이 없고 관계없는 것을 하기 좋아하는 일
- 12)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등 게을러서 글을 읽지 않는 일
- 13) 글 읽을 때 서로 돌아보며 잡담하는 일

- 14) 방심하고 혼매하여 앉아서 조는 일
- 15) 단점을 두호하고 과실을 숨기며 언어가 진실하지 못한 일
- 16) 한가한 사람을 대하여 잡담하기를 좋아하는 일
- 17) 초서와 난필로 종이를 더럽히기 좋아하는 일(우영희, 1992: 66)

10살이 되면 밖에 있는 스승에게 보내어 글쓰기와 셈하기와 아이들이 익혀야 하는 간단한 예절을 익히게 한다고 하였다. 13살이 되면 음악과 시와 춤을 배우고 활쏘고 말타는 것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모두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절덕목 교육이고 정서함양 교육이고 현재의 초등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도덕성의 기초는 생활중에 조금씩 자란다. 어느날 갑자기 도덕 교과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해 남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정서적 갈등 없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감성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15살이 되면 비로소 대학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공자가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대학공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생을 지속할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이다. 율곡은 “학문을 할 때 뜻을 세우는 것[立志]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뜻이 서지 않고 성공하는 이는 없다”(擊蒙要訣. 立志章)¹⁰⁾ 라고 하였으며 학문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행해야 할 바를 알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 모르고 망령되게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스스로는 안일하게 자포자기 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擊蒙要訣. 序文) 라고 하였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먼저 내적으로 자아를 확립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물의 이치를 밝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격물치지이다. 격물치지는 추상적 관념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세계에 나아가 경험을 통하여 각각의 상황에 걸맞는 올바른 대응의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

10) “初等先須立志 未有志不立而能成功者”

다고 하여 옳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고 바른 삶이 진정 좋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 진실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주체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궁극적 목적은 내적인 자아의 확립만이 목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대로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롭게 대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사양할줄 알며 국가를 위하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IV. 청소년 교육과 유교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대략 9-13세에서부터 22-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특성을 생리 신체적 특징과 사회심리 정신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징은 한마디로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성적발달에의 수치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또한 신체 각 부분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적응현상을 초래한다. 공자는 어릴 때는 혈기가 아직 미정하니 이성을 그리워 하는 욕망을 경계하여야 하고 장성하여서는 혈기만을 믿고 다투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論語, 季氏篇)¹¹⁾

청소년은 이미 어린이도 또 완전한 성인도 아닌 성인으로 향하는 중간인의 위치

11) “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鬥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에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독립적 욕구와 자기 주장의 특권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부모나 다른 기성세대에게 의존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은 아이로 취급을 하면 화를 내지만 반대로 어른 취급을 하면 불안해 하며 이 두 욕구간의 갈등으로 이유없는 반항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 영웅과 같은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비합리적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극단적 이상주의와 현실부정 현실도피 경향간에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자기부정 혹은 사회부정을 택하게 된다(권이중, 1992).

청소년 교육에 대한 유교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유교에서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인간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렇게 배양된 인간에 의하여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유교에서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면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인간을 이상으로 한다. 현대 교육이 특별한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려고 한다면 유교에서는 두루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끝없이 채워가며 어떠한 일이 주어졌더라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양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인간의 순수한 정신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유교에서는 현실적 삶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가치를 도외시하지는 않았다.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예의를 알게 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 삶의 토대가 되는 경제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생각하였다. 셋째로 문제상황에 부딪혀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무엇을 기필하려는 생각 집착하여 막히는 것과 사사로운 마음을 끊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을 추구하였다.

유교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자각과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는 “집에서는 효도하며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게 행동을 하며 일을 처리함에는 신중하게 하여 믿음직하여야 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이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고도 여력이 있으

면 文을 배워라”(論語, 學而篇)¹²⁾고 하였다. 행하지도 못할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익혀서 어김이 없도록 하고 난 후에야 배운 지식들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단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우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論語, 爲政篇)¹³⁾고 하였다.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선인들의 언행을 배우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풀, 나무, 벌레, 물고기 등의 이름을 아는 일까지 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유용한 창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색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사색만 하고 널리 배우지 않는다면 공상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인 이상론으로 호를 염려가 있다.

유교는 말로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교육을 하고자 한다. 즉 배우고자 한다면 스승이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도 모른다면 말을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자공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를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공자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사시가 행해지고 백물이 생성하니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論語, 陽貨篇)¹⁴⁾고 답하였다. 세상의 이치는 이미 자연에 모두 드러나 있으니 그것을 잘 보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승이 보여주는 행동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천으로 숭선수범 함으로써 반복해서 보여주고 더불어 행동으로 익히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이 인(仁)이다. 인은 유교의 가르침이 말미암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유교의 모든 이론은 인(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인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요 인간이 되는 덕의 총칭으로 모든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12)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13)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14)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근본적인 것이다. 유교의 교육은 인을 구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고 학문의 목적도 이 인과 덕을 내 몸에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으며 교육의 중점이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오도(吾道)는 하나로써 꿰뚫어진다고 하니 증자가 예하고 망설임없이 답하였다. 문인들이 증자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답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충서(忠恕)일 따름이다”(論語. 里仁篇)¹⁵⁾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로 꿰뚫어진다고 할 때 하나가 무엇인가를 공자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증자가 말한 충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자가 말한 충서는 바로 인이다. 그러나 충서로 말미암아 인을 행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충서가 바로 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자는 충서를 해석하여 충은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서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충서는 인을 행하는 방법이고 인은 충서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 있어서나 수양에 있어서나 인을 체득하여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교에서 공부는 문(文)과 행(行)으로 대별된다. 문은 도를 배우고 공부를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행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공부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공부의 목적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의 주가 되는 것은 ‘행’에 있다. 그러나 행도 문을 떠나서는 바르게 행할 수 없다. 이 양자는 항상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공자도 “널리 문을 배우고 예로서 요약한다면 도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論語. 雍也篇)¹⁶⁾라고 하였다. 이 양자는 서로 합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문은 시서(詩書)를 배우는 것이고 행은 예악을 행하는 것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가히 흥기하게 하며 가히 선악과 시비를 알게 하며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며 가히 원망할 수 있게 한다.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부터 멀리는 인군을 섬길 수 있게 하며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게 한다”(論語. 陽貨篇)¹⁷⁾라고 하였다. 또 아들 백어에게 말하기를 “너는 시경의 주남 소남편을 읽었느냐? 사람이

15)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6)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不畔矣夫”

17)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주남 소남을 읽지 않으면 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된다”(論語. 陽貨篇)¹⁸⁾라고도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유교에서는 시와 서를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심지(心知)를 계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행에 있어서 예를 강조한 것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 것이며 움직이지도 말아라”(論語. 顏淵篇)¹⁹⁾고도 하였고 “공손하지만 예가 없으면 수고스럽고만 하고 신중하지만 예가 없으면 비겁하게 보이고 용맹하지만 예가 없으면 어지럽게 되고 정직하지만 예가 없으면 각박하게 된다”(論語. 泰伯篇)²⁰⁾고 하였다. 유교에서는 예와 악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예악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극력 배척하였다. 공자는 천자의 춤인 팔일무를 계씨가 자기의 집에서 추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참는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論語. 八佾篇)²¹⁾라고 비판을 하였으며 또 계씨가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여제(旅祭)를 태산에서 지내려고 하자 “어찌 태산이 방림(林放)만 못하겠는가?”(論語. 八佾篇)²²⁾라고 비판하였다. 나무랐다. 유교에서 예악의 근본은 우리들의 마음의 덕 즉 인이고 예악의 말(末)인 형식에만 힘쓰는 것을 경계하였다.

V. 정보 사회와 유교

현대를 가리켜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농경사회가 막을 내리면서 어느 사이에 산업사회의 거센 물결을 맞게 되었고 또 이 산업사회도 급속도로 정보 사회로 옮겨 가고 있다. 산업사회는 모든 것을 대량화하고 규격화하여 개인의 삶을 비인간화시키고 조직에 길들여진 인간으로 탈바꿈

18) “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19)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20) “子曰 恭而無禮則勞 慎而無禮則蕙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21)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認也 孰不可認也”

22) “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不能救與 對曰不能 子曰 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사회가 채 자리를 굳히기도 전에 정보사회를 맞게 되었다. 정보사회는 그동안 규격화, 규제화, 타율 등에 묶였던 사람들의 개성과 자율과 다양성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규격화된 기성품에 의존했던 시대에서 개인이 이것과 저것을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시대로 가기 때문이다. 선택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이 다양성이란 규격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정보사회는 개방과 유연의 사회이다.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열려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은 주체성과 창의성 도덕성을 지닌 인간상일 것이다. 요컨대 정보사회에서 살아갈 인간상은 다양성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과 개방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간 그리고 내면화된 자율적 윤리규범을 지닌 도덕적 인간상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유인종, 1992).

결국 새로이 전개되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인간성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의 유교적인 입장은 첫째로 본성의 선택을 자각하고 주체적인 도덕성을 확립하여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둘째로 어린 시기부터 가정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익혀 자기 통제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정보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소학이 쓰여져야 한다. 새로운 소학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과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특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부모와 교사가 솔선하여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로 폐쇄적이고 규격화된 교육제도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과 학교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창조적 사고를 소중하게 여기며, 각 지역과 국가 민족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며, 종교간 대화와 이해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사고와 판단과 행동

을 하여야 한다는 유교의 시중(時中)의 정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더욱 요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小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擊蒙要訣

J. M. 리치, 金丁煥(譯)(1985). 人間主義 教育學. 서울: 博英社.

권이중(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良書院.

金壽銅(1995). 루소의 自然主義 教育思想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서풍연(1991).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극범(1996). 고도정보화 시대의 한국교육의 과제. 教育學研究, 제34권 4호, 韓國教育學會.

吳善均(1989). 孟子的 教育思想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우영희(1987). 朝鮮時代 子女教育에 關한 研究. 教育論叢, 第8輯. 國民大學校教育研究所.

우영희(1992). 韓國傳統家庭에서의 子女教育. 教育論叢, 第12輯. 國民大學校教育研究所.

우영희(1991). 韓國傳統家庭에 있어서 子女教育(2). 教育論叢, 第11輯. 國民大學校教育研究所.

이동원(1995). 인간교육과 협동교육. 서울: 星苑社.

李容吉(1994). 誠 思想의 教育理念의 考察. 教育研究, 제13호. 圓光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林承權(1993). 教育의 心理學的 理解. 서울: 學志社.

조난심(1997). 人間教育의 개념연구. 教育研究, 제17권 제1호. 教育研究社.

韓基彦(1987). 東洋思想과 教育. 서울: 法文社.

韓基彦(1988). 韓國人의 教育哲學. 서울: 서울대출판부.

韓洪愚(1993). 教育學 概論. 서울: 東文社.

문화체육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 주최(1996). 종교지도자 세미나 자료집.